



공정정보도

2011-4호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110-140) 서울 중구 수하동 67
/전화398-3620~2/ 팩스398-3630/
발행인 공병설·공보위간사 고흥규

www.newsunion.co.kr

편집위, 노동쟁의 등 사회갈등 보도관행 점검

제3기 노사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는 6월30일 제4차 회의를 열어 유성기업 사태를 계기로 노사 갈등과 관련한 보도관행 전반을 짚어봤다.

노측은 노동쟁의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약자나 소수자가 관련된 갈등 이슈를 기사로 다룰 때 기존 보도방식이 관성에 젖어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면서 분쟁의 쟁점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새로운 시각을 담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성이란 '파업 손실 눈덩이'와 같은 일방형 주제에 지나치게 치우친다거나 주관적 화자를 인용하는 형태로 써야할 조심스러운 내용을 객관적인 팩트인양 인용부호 없이 다루는 테크닉에 관한 것이다.

노측은 그런 맥락에서 유성기업 사태의 경우 파업을 촉발한 원인인 노동(근무)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설이 다소 미흡하고 정부인사들의 '평균연봉 7천만원' 발언에 대해서도 진위를 추적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아쉬움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사측은 전체적으로 균형 감각을 갖고 노사는 물론 재계와 노동계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유사한 이슈를 다룰 때 새로운 문제의식을 담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노사 양측은 하지만 유성기업 사태 보도를 안전에 올린 것은 일련의 관련 기사들이 공정성을 결여했다기보다는 사회의 민주화·선진화로 대표되는 시대의 변화에 걸맞은 시각과 기사 작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데 공감했다.

또 이런 이슈를 취급할 때에는 데스크의 2차적 지휘뿐 아니라 일선 기자들의 1차적 시각과 접근 방법, 기사 기획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노사가 함께 충실한 보도를 위해 더 많이 고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회의에는 노측에서 공정정보도위원회 고흥규 간사, 류지복 부간사, 김성진 기협지회장이, 사측에서 김성수 편집상무, 이래운 편집국장, 장윤주 국제국장, 이선근 통합뉴스국장이 참석했으며, 채삼석 기사심의실장이 옵서버로 함께 했다.

<요약>

■ 노측 = 유성기업 사태 보도와 관련해 두가지를 지적하겠다.

첫째, 파업의 원인이 근무제도 변경이었는데 이 쟁점을 상세히 소개하는 기사가 다소 부족했다. 예를 들어 지하철 파업이 생기면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았다는 식의 보도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 왜 파업에 이르렀는지에 대해 파고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자동차업체나 경제단체의 입장도 전해야 하지만 전반적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없지 않다.

둘째, 유성기업 근로자의 평균연봉이 7천만원이라는 발언이 정부 인사들부터 나왔고, 이 언급이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이데올로기적 영향이 컸다고 본다. 정통한 사람이 발언하면 그것으로 논란은 끝이라는 식의 접근법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그 화자가 말한 내용이 진실일까 하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논란이 된다면 기사로 다루야 한다. 평균연봉이 7천만원에 못 미친다는 다른 언론의 후속 보도가 있었다.

■ 사측 = 유성기업 사태 관련 보도는 지방, 산업, 사회 등으로 여러 부서에 걸쳐 있다. 산업 파트는 특

성상 업계 시각의 기사를 많이 쓰고 사회 부문은 노동계 목소리를 담은 기사를 많이 다루기 마련이다. 지방 기사에는 노사 주장이 골고루 담겨 있다. 전체적으로 균형 감각을 갖고 썼다고 생각한다.

이번 건은 노측이 사측의 잘못을 지적하고 사측이 반성해야 하는 성격의 사안은 아니다.

노측이 지적한 부분의 경우 현장기자가 쓰려고 하는데 데스크가 쓰지 말라고 말렸을 것같지 않다.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언론도 파업 등 노사문제를 다룰 때 오래전에 만들어진 기사처리 관행을 되풀이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 또 새로운 틀을 재정립하려면 내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 노측 = 노사 모두 고민할 부분이라는 데 공감한다. 기사를 쓰다 보면 관성처럼 넘어가는 것들이 생긴다. 파업이 발생하면 으레 업계의 피해나 시민의 불편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정작 왜 파업이 발생했는지 천착하는 노력은 미흡하다. 시대가 많이 변했다. 현장기자든, 데스크든 관성에서 벗어나 그런 관점을 가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사측 = 노측의 문제제기에 사측이 해명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나은 보도 방식을 찾아보는 기회로 삼자는 자리로 이해한다.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뜯어보는 문제제기는 필요하다. 고정된 시각을 탈피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일에 대해 데스크와 평기자가 대화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달의 참글상

이달의 참글상에 '김해공항서 기장 음주단속'

연합뉴스 노동조합 공정정보도위원회는 6월27일 회의를 열어 김선호 조합원(부산취재본부)의 '김해공항서 아시아나 기장 이륙 전 음주단속' 연속보도를 이달의 참글상 우수상으로 선정했다.

공보위원 19명 중 15명이 참가한 투표에서 14명이 해당 기사가 수상작으로 적합하다고 의견을 냈고 회의 참석자 6명이 우수상으로 의견을 모았다.

수상작은 김해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기 1편의 출발 시간이 1시간 이상 지연된 데 의심을 품고 취

재한 결과 기장이 이륙 전 음주로 적발됐다는 사실을 확인, 5월3일 스트레이트 기사를 송고한 뒤 관련 박스 기사를 4건 더 내보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관련, 5월19일 항공기 조종사의 음주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강화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해당 기사는 자칫 대형 항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기장의 음주사실을 빠르고 정확히 확인해 시민의 안전에 이바지하고 정부와 항공업계의 경각심을 일깨

웠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무심하게 넘겨버릴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 기자다운 의문을 품고는, 기업 입장에서는 숨기고 싶은 사실을 공들여 캐내고 끈질기게 후속보도까지 한 것이 수상의 배경이 됐다.